

‘가을의 서정’ 김동규와 함께하는 ‘선물같은 시간’



바리톤 김동규

본보 김동규와 함께하는 ‘10월의 어느 멋진날에’...2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테너 하세훈·바리톤 신홍규·소프라노 박현진 등 다채로운 무대 세대 아우르는 감성 충만...가을 밤 ‘진한 여운·깊은 울림’ 전해

가을 밤 가족들과 함께 오랜시간 간직될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할 공연이 펼쳐진다. 클래식, 가곡, OST 등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통해 진한 여운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공연이 오는 24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관객을 맞는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바리톤 김동규를 중심으로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홍규, 소프라노 박현진, DK양상남 등이 무대에 오른다.

클래식 성악부터 가곡, 영화 OST, 뮤지컬 넘버, 월드뮤직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로 약 100분간 진행된다.

특히 공연 제목인 ‘10월의 어느 멋진날에’는 김동규를 대표하는 곡이자 오랫동안 대중에게 사랑받아 온 노래다. 가을의 정취와 잘 어울리는 서정적인 선율과 노랫말로 친숙한 곡인 만큼 이번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가

을밤의 여운을 더할 예정이다.

공연은 1부 ‘가을의 시작’, 2부 ‘사랑의 시작’, 3부 ‘클라이맥스&피날레’로 구성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레퍼토리의 폭도 넓다. 이탈리아의 명곡 ‘I L MONDO’를 시작으로 한국 가곡 ‘봄여름’, ‘그리움’과 대중에게 친숙한 ‘Stand by me’, 오페레타 아리아 ‘Art is calling for me’, 이탈리아 민중가요로 널리 알려진 ‘Bella ciao’ 등이 무대에 오른다.

김동규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만나는 ‘김동규의 사랑이야기’도 마련된다. 이어 ‘한 사람’, ‘인생’ 등 삶과 사랑을 노래하는 곡들이 무대를 채운다. 공연의 대미는 표제인 ‘10월의 어느 멋진날에’가 장식한다.

이처럼 이번 공연은 한 장르에 집중하기보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오가며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꾸린 점이 특징이다. 바리톤, 테너, 소프라노 등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피아노, 일렉트론, 베이스기타, 드럼 등이 어우러져 곡마다 다른 색깔을 전해준다.



테너 하세훈



바리톤 신홍규



소프라노 박현진



피아노 김영미

무대의 중심은 바리톤 김동규가 맡았다. 김동규는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에 수석 입학해 졸업했으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성악가다. 상명대 음악학과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테너 하세훈과 바리톤 신홍규, 소프라노 박현진도 김동규와 호흡을 맞춘다.

하세훈은 현재 한양대와 한세대 성악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바리톤 신홍규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현재 가천대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소프라노 박현진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빈 시립음대 오페라과 석사과정을 수석 졸업했으며 현재 오페라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연주진도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김영미와 일렉트론 김하얀·최해진, 드럼 우상혁, 베이스기타 신인섭이 참여

한다.

김영미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군산대, 가톨릭대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김하얀은 이탈리아 가스파레스폰티니 음악원에서 반주과정을 수료하고 다수의 오페라 무대에서 일렉트론 연주를 하고 있다.

최해진은 KBS 다큐멘터리와 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일렉트론 연주에 참여했으며 더원, 카이, 손태진, 알리 등 여러 가수의 세션으로 활동했다. 우상혁은 디토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셋드럼을 맡고 있으며, 신인섭은 A.D대구 마약치유 뮤지컬 ‘미션홀’ 등의 세션으로 참여했다.

한편 공연티켓은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으로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예매는 예스24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광주매일신문 (062-650-2074)으로 하면된다.

/오복기자

‘찰나의 이미지에 詩를 입히다’

광주디카시인협회 ‘2026 무등 디카시 포럼’...오는 13일 동구 미로센터

사진 한 장에 짧은 시어를 더해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는 ‘디카시’의 창작 세계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디카시인협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미로센터 3층 미로극장 1관에서 ‘2026 무등 디카시 포럼’을 개최한다.

‘시와 일상의 대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디카시, 나도 쓸 수 있다’를 내건 이번 포럼은 디카시의 창작 원리를 짚어보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디카시의 대중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권준영 광주디카시인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조필 광주디카시인협회 대

표가 ‘디카시 원론적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디카시의 개념과 특성, 기본적인 창작 방법 등을 살펴보고 디카시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어 협회 회원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디카시, 나의 디카시’가 펼쳐진다.

오종희 시인은 ‘순간 연설의 미학’, 기정남 시인은 ‘사유의 바다’, 문병선 시인은 ‘단순함에 도 불구하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도영 시인은 ‘순간 포착의 진수’, 신옥비 시인은 ‘언어의 유희’, 손택순 시인은 ‘이미지즘과 아포리즘’, 정순영 시인은 ‘디카시도 시다’를 각



사모(思慕)

사랑한다 말할까 말까
매아른 심장
꽃어만 지는데
끝내 열지 못한
미련한 입술
기정남

각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조필 광주디카시인협회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디카시 애호가와 일반 독자들이 디카시의 창작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작품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누구나 시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생활문학으로서 디카시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광주문화재단,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렉처 콘서트’

14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광주문화재단은 ‘2026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2회차를 오는 14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2026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는 ‘사이의 발견-스쳐 지나던 순간에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3회 진행하고 있다.

이번 2회차는 광주문화재단과 시민자유대학의 협력으로 마련됐으며, 철학자의 해설과 음악 공연을 결합한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구용 교수의 해설과 가수 김원중의 공연을 통해 광주의 장소에 깃든 사람과 기억을 시민들과 함께 살펴본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급속한 도시

변화로 장소에 쌓인 흔적과 기억이 사라지는 가운데, 광주의 장소에 깃든 사람과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전한다. 이와 함께 가수 김원중이 무대에 올라 ‘바위섬’, ‘직녀에게’, ‘광주천’, ‘나는 바이크타고 시베리아에 간다’ 등을 들려준다.

이번 아카데미는 철학적 사유와 라이브 공연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만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https://forms.gle/rjFbVCGqPJAXepuBA>)과 유선 접수를 통해, 회차별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대기자로 등록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복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광주 수목장 블로그 바로가기